

차박·캠핑 마니아들의 차…‘더 기아 PV5’ 계약 개시

PBV 전용 ‘E-GMP.S’ 최초 적용해 공간 활용성 극대화
목적기반 모빌리티…사무실·캠핑카·택배차 자유자재 변신
세제혜택·보조금 반영 시 패신저 3000만·카고 2000만원대

차박·캠핑 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기아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더 기아 PV5(PV5)’ 계약이 10일부터 시작된다.

9일 기아에 따르면 PV5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최초 적용한 차량으로, 단순 이동만이 아닌 물류, 레저 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GMP.S’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PV5는 전기차 전용 구조 덕에 편평한 플로어와 넓은 실내화물 공간 등 탑재가 쉬운 구조를 갖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기아는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용성을 겸비한 PV5를 개발했으며, ‘목적기반 모빌리티’라는 타이틀답게 차량이 사무실로 변신 할 수 있고, 캠핑카, 택배·화물차, 휠체어 전용차 등으로도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

기아는 또 기본 차체와 플랫폼 위에 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모듈(어퍼 보디)을 탑재할 수 있도록 차량을 디자인하고, 향후 파생 모델이 지속해 출시될 수 있게 했다.

우선 PV5는 루프, 도어 등 주요 차체 부품을 모듈화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으로 고객 요구에 따라 시트를 배열할 수 있는 ‘패신저’와 상용 목적으

로 적재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카고’ 모델부터 출시한다. 기아는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차량, 레저와 휴식에 최적화된 ‘라이트 캠핑’, 패신저 고급화 모델 ‘프라임’, 냉동탑차, 미닫이 탑차 등 다양한 모델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PV5 패신저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기본적인 이동 기능은 물론 차박, 피크닉 등이 가능한 모델이다. PV5 패신저는 2995mm의 축 간거리로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탑승 인원과 목적에 따라 1·2·3열 시트 배열도 조정할 수 있다.

먼저 출시된 ‘5인승 2·3-0 트림’의 경우 2열 시트를 접는 기능이 적용돼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하며 트렁크 용량은 최대 2310L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화 플로어 설계를 통해 2열 스텝(지면에서 2열 도어 스텝 까지의 높이)을 399mm까지 낮췄고, B필러에 긴 어시스트 핸들을 달아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도록 했다.

슬라이딩 도어 개방폭은 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는 775mm 수준으로 확보했다.

PV5 패신저는 최고 출력 120kW, 최대 토크 250Nm의 전기 모터와 71.2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돼 1회 충전 시 358km를 달릴 수 있다. 전비는



택배 차량으로 활용 중인 더 기아 PV5 카고 외장.



LG전자와 협업 전시한 기아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 콘셉트카. <기아 제공>

4.5km/kWh다. 외장 색상은 7가지, 실내 색상은 3 가지다.

상용 목적인 PV5 카고 역시 넓은 화물 공간에 낮은 적재고(지면에서 테일게이트 개구부 최하단까지 높이)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적재 용량에 따라 캠팩트, 롱, 하이루프 트림으로 나뉜다.

PV5 카고는 롱 트림 기준 전장 4695mm로 화물을 최대 4420L까지 적재할 수 있다. 트렁크 개구폭도 1343mm에 달해 국내 기준 1100mm X 1100mm 규격 파렛트도 실을 수 있다.

또 적재고를 419mm로 낮춰 상하차 작업이 수월하고 열림 각도를 95도, 180도로 조정 가능한 양문형 뒷문으로 작업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조명·그물

망·고정 장치 등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장착할 수 있는 ‘L-트랙 마운팅’을 적재 공간에 적용했다.

PV5 카고는 71.2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1.5kWh 용량의 배터리인 스텝다드 모델이 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는 각각 최대 377km(전비 4.7km/kWh), 280km(전비 4.8km/kWh)다. 외장 색상은 3가지, 실내 색상은 딥 네이비 단일 색상이다. PV5는 모델 구분 없이 PV5 전용 특화 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기아는 PV5에서 안드로이드 자동차 운영체계(AAOS) 기반 PBV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제삼자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한 앱 마켓을 현대차그룹 최초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PV5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전 기준 패신저 모델 베이직 4709만원, 플러스 5000만원이며 카고 모델 스텝다드 베이직 4200만원, 롱레인지 베이직 4470만원이다. 전기차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을 반영하면 패신저와 카고 모델은 각각 3000만원 중후반대, 2000만원 중후반대부터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정 기아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은 “PV5는 고객의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며 “확장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美 관세 여파에도…현대차, 인도·브라질·인니서 잘나가네

크레타, 인도 2개월 연속 판매 1위

브라질 하반기 50만대 돌파 전망

미국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크레타는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크레타는 특히 인도에서 2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현지 돌풍을 이어가는 중이다.

9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인도에서 출시한 크레타는 지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23만 7404대로 집계됐다.

인도의 ‘국민 SUV’라 불릴 만큼 인기만점인 모델인 크레타는 2020년 이후 현지에서 매년 10%가 넘는 판매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2월 출시 8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겼다.

비포장도로가 많고 날씨가 더운 현지 환경을 고려해 고장력 강판 사용 면적을 확대하고 뒷좌석에 어컨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한 점이 크레타의 인기 비결로 꼽힌다.

크레타는 지난해 3월과 4월 인도에서 각각 1만 6850대, 1만 6056대가 팔리며 2개월 연속 현지 판



현대차 ‘크레타’.

매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크레타는 연간 판매 20만대를 넘겨 연간 베스트셀링카를 넘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현지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고성능 ‘크레타 N 라인’, 전기차 ‘크레타 EV’를 출시했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타는 인도 외에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차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브라질자동차유통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브라질에 처음 출시된 크레타는 올 4월까지 총 47만 7591대가 판매됐고 올해 하반기 누적 판매 50만대 달성이 유력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월 수입차 판매 전달 대비 증가…테슬라 1위

전체 판매는 전년동기 16.4%↑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차 판매가 전달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고전 중인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우리나라 월간 판매에서 처음 1위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5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전달(4월) 2만 1495대로보다 31.1% 늘어난 2만 8189대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작년 같은 달(2만 4209대)과 비교했

을 때도 16.4% 증가한 수치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한국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6570대 판매량으로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다. 전달(1447대) 대비 354.0% 급증한 수치다.

메르세데스-벤츠(6415대), BMW(6405대), 포르쉐(1192대), 랙서스(1134대), 볼보(1129), 아우디(1022대), 도요타(725대) 등이 뒤를 이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토부, 차 불법튜닝·대포차 등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 차량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단속 기간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불법 명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

로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해 단속한다. 지난해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무등록 운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콤!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콤!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기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동립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립점 062-511-2901~3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 526-0222~3
치평지점 062) 381-8212~3
상촌지점 062) 381-6551~2
화정지점 062) 372-0421~3

유동지점 062) 512-1984~5
동립지점 062) 513-8521~3
운암지점 062) 527-3295~6
운천지점 062) 371-2772~3

유덕지점 062) 373-3235~6
동운지점 062) 528-2640~2
버들지점 062) 381-1971~2
상무동지점 062) 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 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 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 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 385-4977~8

지역 대표 금융 기관

서광주농협